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문 상 필 사무처장

“장애인 체육, 이젠 재활보다 사회와 소통부터”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공식 출범한 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운영을 맡고 있는 문상필(42·사진)사무처장은 15일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사무처장은 “그동안 장애인체육을 재활 체육으로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앞으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다”면서 “장애인들의 엘리트 체육 발전은 광주시의 위상은 물론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사무처장은 시장장애인체육회의 출범 의미에 대해선 “그동안 장애인 체육은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재활’쪽 성격이 강했다. 복지 예산으로 체육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문화관광부가 이관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올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장애인체육회가 출범했고, 재활은 물론 생활체육도 즐기고 전문 선수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고 난 뒤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그는 “내 자신도 장애인으로 세상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다”면서 “특히 체육분야에서 함께 운동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너무 좋지 않다. 시장장애인체육회는 체육

활동 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회적 시각을 바꾸는 것도 주요 업무”라고 말했다.

문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내년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첫 번째 목표로 잡았다. 우선 올해 김천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 5위에 오른 뒤 내년엔 3위까지 올라선다는 계획.

“스포츠에 장애인 꿈과 열정 담겨 일반인만 못하다는 편견 버려야”

작년 대주건설 장애인팀 등 창단 내년 광주 장애인체전 3위 목표

문 사무처장은 “그동안 광주장애인체육은 전국 16개 시·도 중 13~14위를 오르내릴 정도로 최약체였으나, 지난해부터 중위권(7위)으로 도약했다”며 “임기(4년)내에 장애인 엘리트체육을 꾸준히 육성해 전국 최강의 팀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포부도 드러냈다.

또 광주장애인 체육 중 약체로 꼽히는 장애인 골프와 동계종목, 수상스키 등 수상 종목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문 사무처장은 “이같은 다양한 장애인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좋은 사례로 지난 6월 대주건설이 창단한 ‘장애인체육 선수단’을 꼽았다.

탁구 12명과 역도 3명, 배구 2명, 사격 1명 등 선수 18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체육선수단’은 지체장애 1~3급 중증장애인들이 구성됐는데, 2004년 아테네 장애인올림픽 남자탁구 최상급 부문 단식과 복식 2관왕 김영권(24)씨와 지난해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 역도 48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지체장애 1급 최근진씨 등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대주건설로부터 매달 50만원이 넘는 후원지원금을 받고 있다.

문 사무처장은 “우선 올해 말까지 광주지역 5개구에 시 장애인 체육회 산하 지부를 만들고, 구청별로 장애인 실업팀 창단을 독려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은 장애인 체육의 지위 분위기를 지역기업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사진=최현배기자 choi@



“관광객 눈높이 맞추기 위해 최선”

목포역 관광안내소 최희자씨

“목포역 관광안내소는 목포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를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포역 구내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희자(51)씨는 그 누구보다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최씨는 휴가철이라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로 줄을 서서 관광 안내를 받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아침 9시에 출근해 퇴근시간인 6시까지 의자에 앉을 사이도 없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Excuse me” 한 짧은 외국인 부부가 목포역관광안내소를 찾았다. 이 외국인 부부는 관광 코스와 교통·숙박편을 최씨에게 문의하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갈 길을 재촉한다. 휴가철이라 매일 20여 명 정도의 외국인이 목포역 관광안내소를 찾고 있다.

최씨는 담양 남도대학에서 관광해설사 교육을 수료하고 관광협회 중앙회 주관의 관광안내원 자격증을 습득한 후 지난 2001년부터 목포역 관광안내소에서 안내원으로 일하고 있다.

영어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최씨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그림을 그리거나 손을 불자고 나가 직접 알려주는 일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최희자씨는 “관광객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관광정보를 알려주고 여행계획을 짜주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며 활짝 웃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세상 사랑 실천하고 하늘로 떠난 할머니들

전 재산에 시신까지 경희대에 기증



‘우동 할머니’ 김복순씨 별세

자신의 전재산과 시신까지 대학에 기증한 뒤 숨을 거둔 80대 할머니가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5일 경희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돌아가신 김복순(83)할머니는 전재산인 시가 2억7천만 원 상당의 빌라(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를 이 대학에 기부했으며 자신의 시신 역시 이 대학 의료원에 연구용으로 쓰이게 해달라고 유언했다.

김 할머니가 재산을 기부한 것은 지난 1998년 이 대학과 맺은 사후(死後) 기증 약속을 지킨 것이다.

서울역 앞에서 우동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온 할머니는 당시 경희대에 자신이 죽은 뒤 재산을 대학측에 줄 것을 약속했으며 이후 2002년에는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8천800만원도 이 대학에 기부했다.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김 할머니의 삶은 희생과 봉사로 가득 차 있었다.

문화계에 2억달러 비료처럼 뿌리고...



美 자선사업가 브룩 애스터 별세

미국의 유명한 자선사업가이자 뉴욕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브룩 애스터가 13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시 인근 웨스터체스터의 자택에서 폐렴으로 숨졌다. 향년 105세.

AP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애스터는 부호였던 남편 빈센트 애스터로부터 상속받은 엄청난 유산을 바탕으로 사교계를 장악, 뉴욕시의 비공식 퍼스트 레이디로 불렸으며 다른 편으로는 2억달러를 카네기홀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뉴욕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등 자선활동가로도 활동했다.

애스터는 “돈은 거름과 같아서 가능한 많이,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생활 신조를 바탕으로 자선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지난 1998년에는 자선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자유메달을 받기도 했다.

‘큰손’ 장영자씨 사위 화제

자신의 삶 닮은 유작 남겨

13일 타계한 탤런트 김주승



탤런트 김주승이 지난 13일 오전 부천 순천향대병원에서 지병인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46세.

고인의 빈소는 경기도 부천의 석왕사에 안치됐지만 유족 측이 고인의 사망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조문객도 일체 받지 않았다. 유족으로는 이혼한 전 부인과 10살된 외동딸이 있다.

1983년 MBC 공채 16기 탤런트로 데뷔한 김주승은 1980~90년대 샤프하고 핸섬한 마스코트 브라운관 인기 스타로 활약했다.

1990년 ‘큰손’ 장영자 씨의 사위가 되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1980년대 제5공화국 권력형 금융비리사건의 중심 인물인 장씨의 딸과 결혼했으나 이후 1994년 장영자 씨 부도사건의 여파로 해외로 도피하는 등 사기 및 부도 사건과 암 투병 등으로 시련을 겪기도 했다.

암을 극복한 것으로 보였던 2003년에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에는 드라마 제작사 디지털를 차리고 “그녀가 돌아왔다”, “나도야 간다” 등을 제작했다.

‘라이언킹’ 이동국 “딸 쌍둥이 아빠 됐어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네번째 한국인 선수인 ‘라이언킹’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딸 쌍둥이의 아빠가 됐다.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씨는 14일 낮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병원에서 딸 쌍둥이를 출산했다.

산모와 아기들은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국은 미스코리아 하와이 출신인 이수진씨와 1998년 만나 7년 간의 열애 끝에 지난 2005년 말 결혼에 골인했다.

지난 2일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영국으로 출국한 이동국은 출산 과정을 지켜보지는 못했다.

출국 당시 이동국은 “이달 중순께 쌍둥이가 태어나는 데 직접 볼 수 없게 돼 아쉽다.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멋진 활약을 펼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

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사)국제제철협회 광주서부지부 외국인 여성 위한 한글학교 운영=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점심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의=9월 1일, 8일 오후 2시~5시. 광주대도서관 5층. 음·양택, 수맥, 나경, 지도상명당, 장법요강 등. 문의 011-609-8117, 670-2161

동창·동문회

▲효동 32회 동창회(회장 김성곤) 월례회=16일(목) 오후 8시 화나 공나물 해장국. 523-2550

▲복성중 제 17회 동창회(회장 유영은) 월례회=17일(금) 오후 7시 일송정. 525-9977

▲복성중 제 16회 동창회(회장 강해동) 월례회=18일(토) 오후 7시 송원회관. 223-0028

모집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북구지역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북구지역 결혼 이주여성 30명. 한글·컴퓨터·집단 상담·미술 활동·명절 행사·가족 나들이 등 프로그램 무료로 진행. 문의 267-3700

▲광주 금호평생교육관 2007 하반기 문화강좌 수강생모집=8월 28일부터 4개월 과정. 생활예절과 라레·야코디언·바이올린·노래교실·클트·오페션·국악·요가·모던댄스·라틴댄스·풍수지리·서예반: 주1회 수강료 3만원, 컴퓨터·영어회화: 주2회 수강료 5만원. 장애인·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무료. 23일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 360-6631~6.

▲광주사회복지시설 정신장애인 주간 프로그램 이용회원 모집=정신 장애인들에게 조속한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이용회원 모집. 무료. 정신의료기관에서 현재 약물 치료 중인 만 18세 이상 정신장애인. 문의 262-4379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의무트레이너(자원봉사단) 모집=20일까지. 중증 장애인 선수 보조 및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 문의 384-5542

▲아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모집=고졸 이상 학습지도 가능자. 문의 262-2780, 3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가사 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희망하는 주부 및 고령자. 문의 511-0011~3

▲광주인연맞기학교 차량지원활동가 모집=휠체어 이용 장애아동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차량 자원활동가 모집. 문의 010-2323-2688

▲민요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우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전남장애인재활협회 자원봉사자 모집=장애인 가정 방문 컴퓨터 AS, 교통비 지급 524-1860

복지부 한방 정책팀장)씨 부친상 이 화범(호남상회 대표)·정부근(자영업)·박학래(NSK)·정성균(노동부 포함지청장)·김중석(이노건설 부장)씨 병부상 이재원(광주MBC 기자)씨 외조부상 =발인 16일(목) 영광군 영광읍 제일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1-352-2300

▲김순심씨 별세 이찬웅(전 외환은행 영업본부장)·찬호(산은은행 사회지점 총괄팀장)·찬현(남매산 씨엔에프 상무이사)씨 모친상 문장옥(전 교사)·오병인(전남도 교육위원)·배용웅(목포 진고개 약국)·박승욱(광주대교 대표이사)씨 병모상 =발인 16일(목) 강남성모병원 22분향소. 02-590-2697

부음

▲김철중씨 별세 양수(전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장)씨 부친상=발인 16일(목) 한국병원 장례식장. 019-609-1704, 606-1313

▲김영욱씨 별세 육근(자영업)·진근(한국 교원대 교수)·춘근(보건

광주 남구청 ‘2007 효사랑 어린이 교육캠프’



광주시 남구청은 14~17일 조선대 사범대와 공동으로 곡성군 심청 문화센터에서 ‘2007 효사랑 어린이 교육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는 조선대 사범대 재학생들이 교사진으로 참가해 전광범 전문적 학습 지도와 1대1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 남구청 제공)

소아암 어린이들이 자선음악회 기금 전달



광주 무등청년회의소(회장 이영훈)는 지난 7월15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이 자선음악회를 개최해 모은 기금 전액을 15일 어린이 환자 3명의 수술비로 화순 전남대병원 에 전달했다. (무등청년회의소 제공)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남묘특별분양 (062)521-1100